

글로벌 리더의 패러다임 · 相生協力

삼성전자 재경담당 정병기 전무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적극 대응”

삼성전자(대표 이윤우 부회장)는 지난 7월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서울통신기술, 삼성전자로지텍 등 삼성전자의 7개 계열회사와 주요 협력사와의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생협약 참여 규모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만 740여개, 7개 계열회사의 1차 협력사까지 포함해 그 대상 기업이 1,350여개에 이른다.

이번 협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 상호간 관련법규 철저히 준수 ▲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강화 등 경제살리기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대·중 소기업간 상생협력체제 구축에 앞장서게 된 삼성전자의 재경담당 정병기 전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상생협력 실천의지를 가늠해본다.



Q 삼성전자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실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기획하고 체결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삼성전자는 업(業)의 특성상, 부품 및 설비를 공급하는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바로 삼성전자의 경쟁력입니다. 그동안 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이에 협력회사들도 적극 호응한 결과로 오늘의 삼성전자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자산업의 시장성장 둔화, 업체 간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원자재 가격 급등, 세계적인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선도기업을 따라하면 되는 'Follower'를 뛰어넘어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경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변하는 세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함께 상호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협력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기업 저변에 확산됐습니다. 지난 5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이윤우 부회장님께서 대표이사 직속조직으로 '상생협력실'을 신설해 'Win-Win'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그 결과물 중 일부를 협약서에 담아내어, 지난 7월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생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도 금번 협약 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와 달리 7개 계열회사와 함께 협약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A 이번 상생협력 협약식을 공동으로 개최한 7개 계열회사는 삼성전자 제품의 물류, 판매 또는 설비 제조 등 수직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계열회사들이 각사 협력회사들과의 상생협력을 함께 추진한다면 상생협력의 시너지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계열회사에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했는데, 모두들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서면서 계열사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Q '상생(相生)'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삼성전자만의 고민으로 공정거래협약 안을 마련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협약 체결을 위해 협약 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준비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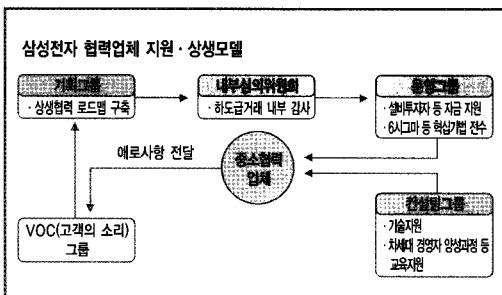
A 협약서의 내용은 크게 2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도급법을 잘 준수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협력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문은 공정위에서 제정·권장하고 있는 3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협력회사 및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해 삼성전자의 업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일부를 수정·보완했습니다. 두 번째 부문과 관련해서는 협력회사들과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회사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갔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내부토론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단을 구성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Q 공정거래협약의 핵심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앞서 말씀드렸듯이 3대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내용은 “하도급법을 잘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의 준수 여부가 공정위 처벌에 의해 강제되기 이전에, 상호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업체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하자고 서약하고, 또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적인 감시를 받게 되었다는데 점에서 협약 체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2003년에도 '협력업체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이 기존 협력업체 종합 지원책과의 차이점이나 보완·개선된 점은 무엇입니까?

A 이번 협약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협력회사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총 810억 원으로, 이를 연간단위로 환산해보면 예년 수준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지원 내용이나 지원 방안도 협력회사와의 폭넓은 의사 공유와 함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일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만을 전담하는 '상생협력실'을 통해 집행되



기 때문에 실효성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추후 협약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갈 담당인 '상생협력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상생협력실은 급격한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5월 신설됐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조직이며 부사장을 실장으로 한 50여 명의 직원이 협력사들의 고충 처리, 상생협력 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1,300여개의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것은 업계 최대 규모이고, '삼성전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국내 경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 체결이 미칠 파급효과와 이후 기대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거론할 수 있을까요?

A 협약 체결을 통해 삼성전자와 협력회사들 간에 상호 이해와 신뢰가 더욱 돈독해지고 'Win-Win' 하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 모델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이 여타 회사에도 확산되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이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중소기업들은 '납품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대기업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협약 등을 통해 합리적인 납품가 조정 등 중소기업과의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상품의 가격은 원자재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거래관계, 거래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원자재가격에만 연동시키는 것은 시장가격과 시장 질서를 크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대기업과 협력회사 모두를 공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법에 의한 규제보다 거래회사 간에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위에서 장려하고 있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의 활성화와 이행 유도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협약 체결이 “여론과 정부 눈치를 보고 삼성전자가 리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다소 굵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활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상생협력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도 협력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번 협약 체결과 상생협력실 신설을 통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공개와 공정위의 평가에 의해 실천의지도 담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공정거래협약, 그리고 3대 가이드라인의 실천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계열사와 협력업체로의 확대 보급 계획이 있으신지요?

A 재차 강조하지만 공정거래자율준수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기업들 스스로의 필

요에 의해 CP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등 자율준수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회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삼성의 경영구조 개편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관련 경영기조의 변화가 있는지요?

A 그룹 경영구조가 개편되었다고 해서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정책이 변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각 계열사별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세용 이랜택 회장